

여름과 가을 사이 발생하는 태풍… 온실 등 농업시설물 피해 줄이려면?

# 덮개자재 보수 · 구조물 보강 미리 서둘러야

이달 1~3여개 국내에 직·간접적 영향 예상

농촌진흥청(정장 허태웅)은 여름과 가을 사이 발생하는 태풍으로 비닐 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덮개(피복)자재 보수와 구조물 보강을 해줄 것을 3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월은 예년과 비슷한 1~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태풍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 태풍 북상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태풍이 오기 전 미리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반드시 환기팬을 작동시켜 비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 천·측(곁)장 개폐 부위, 비닐 패드(판) 등을 확인해 내부로 비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펼

려다면 비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피복재를 온실(하우스) 끈으로 당겨둔다.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강풍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한다.

시설 구조 보강도 신경 써야 한다.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중방을 설치하고, 일정 간격으로 90cm 정도의 철창(철근)을 평속에 박고 지표면 도리에 연결하거나 '알(r)' 자형 형강을 토양에 물어 뽑힘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특히 제주지역은 화산토로 이루어져 같은 기초형태라도 내륙보다 뽑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콘크리트 독립기초와 콘크리트 블록 등을 적절히 설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피복재를 끊어 골조 평상을 막는다.

또한 태풍 발생지역은 토양에 물기가 많아 시설 내부의 습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살균제를 뿌려 병을 예방해야 한다.

태풍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거주 지역의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하면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복구할 때는 내재화해 규칙으로 설치해 앞으로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내재화형 규격시설은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v.kr](http://www.nongsa-ro.gov.kr))에 접속해 농사 백과·농자재→내재화형 농업시설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여름철 태풍 대비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일정에 맞춰 영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재화 온실 설계·시공 관계자는 "내재화 온실을 지으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강풍과 강설 등으로 인한 재해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 이달 중 정부양곡 8만톤 공급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2019년산 5만 톤, 2020년산 3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 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떡, 한과 등 쌀 가공식품 원료를 공급하고,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아직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6월까지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실수요업체 위주로 추석

이전까지 이번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원료화 계획이다. 공매 대상을 도정업·신고업자(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연간 5,000톤 이상, 5,000톤 미만)해 2020년산과 20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공매 일정은 12월 입찰을 실시하고 27일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견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공매로 낙찰받은 정부양곡은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으며, 신·구 곡(穀)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산지 쌀값은 5만5,000원/20kg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은 지난달 31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관내 주요 영농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심민 군수와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 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만전'

영농현장 찾은 농진청-임실군, 상호협력체계 구축

임실군과 농촌진흥청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임실군 주요 영농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심민 군수와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심민 군수와 허 청장은 이날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징과 고령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이에 허 청장은 농업 현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농업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낮 작업을 피하고 응급처치 요령 등 농작업 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과 농진청은 이날 관수장비 및 살수시설 축사 그늘막 설치 지원 등 폭염 피해 및 각종 영농 애로사항 신속해결을 위해 영농종합상황실 운영키로 했다.

고운에 노출된 옥외작업과 고령작업자가 많은 농작업 특성상 더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농작물과 기죽도 고온 속에서 힘겨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밭작물은 가뭄과 헛빛 데임 피해로 생육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기죽들도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 산유량과 증체율이 감소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군수는 "농촌진흥청장께서 직접 방문해 폭염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농가들을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